

(2026년 8월13일 목요일 5면)

전정 행정위원장, 방이초 양궁부 찾아 훈련환경 개선 논의



전정 위원장이 방이초 양궁부 선수들과 함께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파구의회 전정 행정교육위원장이 방이초등학교를 방문해 양궁부 훈련시설을 둘러보고 학교 관계자들과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현재 선수 15명과 지도자·코치가 활동하며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전용 훈련장이 없어 학교 주차장 필로티 공간 등을 훈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훈련환경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이초는 학교 별관 뒤편 부지를 활용해 약 120평(400㎡) 규모의 양궁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궁 전용 훈련시설의 전체 사업

비는 약 12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와 시설배치, 세부 설계, 사업비 적정성 등을 구체화하고 교육청과 송파구 등 관계기관 간 지원 및 재원분담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전정 위원장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송파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체육은 학생들의 성장과 지역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방이초 양궁부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